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김기흥*

1.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강화와 식량자급률

1.1.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강화

일본에서는 2023년 5월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백서에서 식량안전보장 강화가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요의 증가와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로 인해 식량안전보장의 위험(리스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향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환의 시점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일본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식량 안정공급 및 농업수산 기반 강화 본부를 두고 2022년 12월에는 '식량안전보장강화대책대강'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연동하여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구조전환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논·밭의 밭화(畑地化)사업과 밭으로 전환한 후 밭작물의 정착, 농지이용의 단지화 등을 위한 관계자 간 조정 및 종자 확보 등에 대한 지원, 맥류 및 대두 등 자국산 비율 확대를 위한 필지의 단지화 및 농업기계·기술의 도입, 논·밭의 밭화·변용(汎用)화 등을 본격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가공이나 음식점 등 업무용 채소 생산에 필요한 재배기술의 도입으로 국산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료곡물 비축 및 사료운송의 효율화, 사료용 옥수수 생산 확대 등 사업과 토양검진에 의한 화학비료 저감 등 그린 재배체계로의 전환과 유기농업 실천 확대, 비료의 이용효율 향상 등과 연계되는 신제품 개발 등 미도리식량시스템(녹색식량시스템) 전략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식량안전

*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kkh@aarri.net).

이 글은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보고서 중 제1장(농식품 시장: 트렌드와 전망)과 제3장(Cereals)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보장 강화 대책 안에서 다루고 있다(2023년도 농림수산물관계예산의 개요, 농림수산성). 2022년도 예산에서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착실한 이행'이 첫 번째 대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2.1. 일본의 식량자급률 동향

2.1.1. 식량자급률

일본에서는 식량자급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일본 농업시책의 기본지침에 되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²⁾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결정된 계획에서는 2030년도를 목표로 종합식량자급률을 설정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량공급에 대한 국내 생산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급률 계산에는 증량으로 계산하는 품목별 자급률과 식량 전체 단위를 맞추어 계산하는 종합식량자급률이 있다. 종합식량자급률은 다시 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생산액 기준 종합식량자급률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있다.

우선 품목별 자급률은 각 품목의 자급률을 증량 기준으로 산출하며 식용 이외의 사료나 종자용 작물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합식량자급률에는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열량에 주목하여 국민에게 공급되는 열량에 대한 국내 생산비율을 나타내는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지표와 식량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량의 생산액(식품의 국내 소비액)에 대한 국내 생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액 기준 종합식량자급률이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식량소비와 비교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지표에 중점을 두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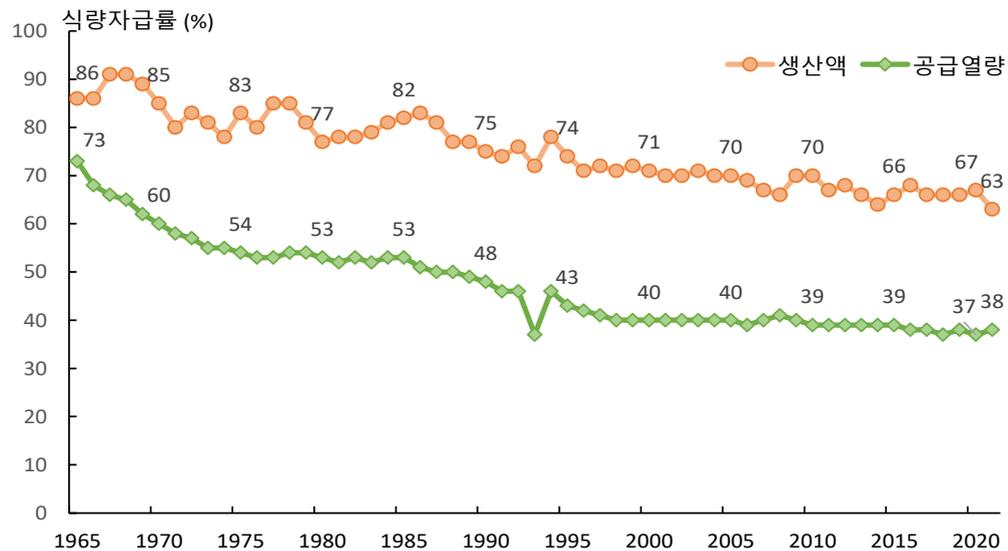
2)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식량·농업·농촌에 관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해 5년마다 개정하고 있음. 현재의 계획은 2020년 3월에 각의결정됨(출처: 농림수산성(2020),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pp. 13~14)

〈표 1〉 일본의 식량자급률 지표

지표	계산식	비고
품목별자급률	품목별자급률 =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 100	국내소비량 = 국내생산량+수입량-수출량-재고증가량(또는 재고감소량)
종합식량자급률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 (1인 1일당 국산 공급 열량/1인 1일당 공급 열량)×100	공급열량은 '일본식품 표준 성분표 2020년 판'에 근거하여 각 품목의 중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다음에 더하여 산출
생산액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생산액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 (식량 국내생산액/식량 소비액) × 100	금액은 '생산농업 소득통계'의 농가정선거격 ³⁾ 에 근거하여 각 품목의 중량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더해서 산출

자료: 농림수산성, 2022

〈그림 1〉 일본의 종합식량자급률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2023), “令和4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2022년도 식량·농업·농촌백서)”, p. 60

2021년도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은 전년도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한 38%를 보이고 있다. 밀과 보리의 작부면적 및 단위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 점, 쌀의 외식 수요가 회복된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생산액 기준 종합식량자급률은 전년도에

3) 농가정선가격이란 도매가격에서 집하와 출하경비 및 도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비해 4% 포인트 낮아진 63%였다. 국제적인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 등에 의해 축산물 사료수입액과 유지류·전분 등 원료수입액이 증가한 점, 육류와 어패류의 수입단가가 상승한 점, 쌀 및 채소의 국산 단가가 저하된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하락 추세에 있다.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은 1998년도에 40%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사활을 걸고 40%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40% 선도 무너진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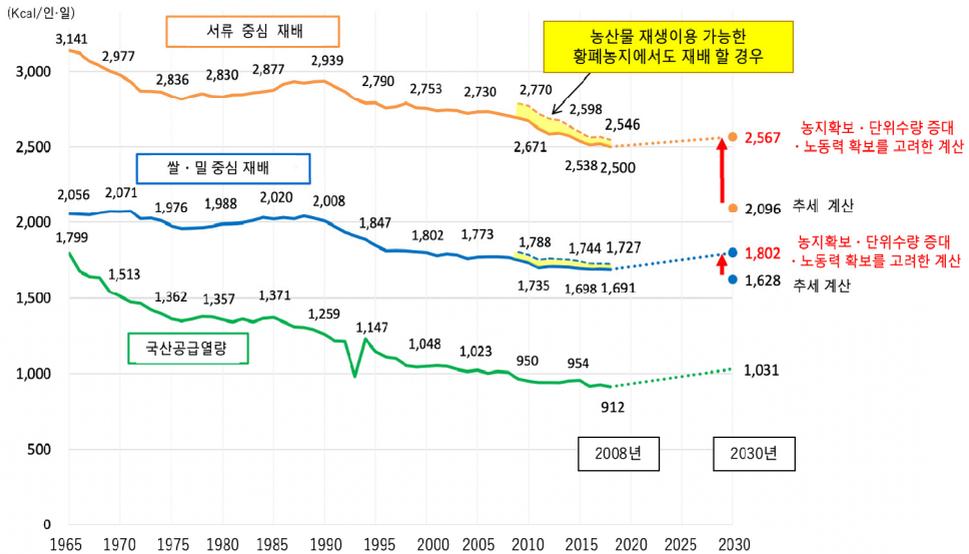
2.1.2. 식량자급력

일본에서는 식량자급률 이외의 중요한 지표로서 식량자급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식량자급력이란 농림수산업의 식량 잠재생산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식량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지표화되었다. 동향을 정기적으로 검증한다는 관점에서 식량자급률 실적치와 함께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식량자급률지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만들었다. 작부는 4패턴에서 2패턴으로 간소화하였으며, 2030년 식량자급률지표 전망이 추가되었다.

식량자급률지표는 농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열량을 얻기 위해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량 생산을 여러 패턴으로 나누고,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의 열량효율이 극대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국내 농림수산업 생산에 대한 1인당 공급가능열량(이하 '농지를 최대한 활용한 공급가능열량'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농지 이외의 요소인 농업노동력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하여, 실태에 맞는 식량자급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패턴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대한 현재 노동력의 연 근로시간 총족율(노동총족율)을 반영한 공급가능열량(이하 '노동총족율을 반영한 공급가능열량'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총족율이 100%를 밑도는 경우에는 작부의 일부를 에너지 절약형 작물로 대체함으로써, '농지와 노동력을 함께 최대한 활용한 공급 가능 열량'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계산식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농지를 최대한 활용한 공급가능열량과 노동총족율을 반영한 공급가능열량, 농지와 노동력을 함께 최대한 활용한 공급가능열량이 해당된다.

〈그림 2〉 식량자급률지표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自給率目標と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식량자급률 목표 및 식량자급률지표에 관하여)”, p. 18 (검색일: 2023. 8. 5.)

2.2.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표

일본에서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에 맞추어 쌀과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노력목표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쌀은 전체적으로 2018년에 비해 2030년까지 줄이는 쪽으로, 그 외 밀, 보리, 대두는 늘려가고자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용 쌀의 생산노력목표는 2018년 775만 톤에서 2030년 723만 톤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편 쌀 가루용쌀은 2018년 2.8만 톤에서 13만 톤으로 약 4.5배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료용 쌀은 같은 기간 43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1.6배 늘리고자 하고 있다.

밀의 경우는 2018년 651만 톤 가운데 국내 생산이 76만 톤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1.4배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리, 쌀보리의 경우는 2018년 198만 톤 가운데 국내 생산이 17만 톤으로 8.6%가 생산되었고 약 1.4배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두는 같은 기간 365만 톤 가운데 6%가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목표치를 1.6배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2〉 식량자급률 목표 및 과제

품목	식량소비 예상				생산능력목표 (만 톤)		해결해야 할 과제
	소비량 (kg/1인·1년)		국내 소비사항량 (만 톤)				
	2018	2030	2018	2030	2018	2030	
쌀 (주식용)	54	50	799	714	775	723	음식의 간편화 지향, 건강 지향, 중식·외식 등의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 확대 쌀·쌀 가공품의 새로운 해외 수요 확대, 해외시장이 요구하는 품질과 수량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육성
쌀가루용 쌀	0.2	0.9	2.8	13	2.8	13	대규모 제조라인에 적합한 기술, 알파화 쌀가루 등 새로운 가공법을 이용한 쌀가루 제품의 개발에 따른 가공비용 절감 국내산 쌀가루나 쌀가루 가공품의 특징을 살린 수출 확대
사료용 쌀	-	-	43	70	43	70	사료용 쌀을 활용한 축산물 브랜드화와 실수요자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새로운 판로개척 날개 출하나 저장고 정비 등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단위 수량 증가에 따른 생산의 효율화
쌀 전체	54	51	845	797	821	806	계약재배에 의한 실수요와 결합된 생산·판매 농지의 집적 집약화를 통한 분산 해소 및 농지의 면적집적 추진 다수 품종 및 스마트 농업기술 등에 의한 다수확·에너지 절약 재배기술의 보급, 자재비 절감 등 생산비용 절감
밀	32	31	651	579	76	108	국내산 밀의 수요확대를 위한 품질향상과 안정공급 내병성, 가공성이 뛰어난 신품종 개발 도입 추진 단지화, 블록 로테이션 추진, 배수대책 강화, 스마트 농업의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포장조건에 맞는 단위수확량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보리, 쌀보리	0.3	0.3	198	196	17	23	국내산 보리, 쌀보리 수요확대를 위한 품질향상과 안정공급 내병성, 가공성이 뛰어난 신품종 개발 도입 추진 단지화, 블록 로테이션 추진, 배수대책 강화, 스마트 농업의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포장 조건에 맞는 단위수확량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대두	6.7	6.4	356	336	21	34	국산원료를 사용한 대두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한 생산량, 품질 가격의 안정공급 내병성, 가공성이 뛰어난 신품종 개발도입 추진 단지화, 블록로테이션 추진, 배수대책 강화, 스마트 농업의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포장조건에 맞는 단위수확량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0),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pp. 13~14 (검색일: 2023. 8. 5.)
 주 1. 국내소비사항량은 1년간 국내에서 소비에 쓰인 식량의 양으로 국내생산+수입-수출±재고증감으로 계산됨
 주 2. 중식(中食: 나카쇼쿠)이란 가정 외에서 조리된 식품을 구입해서 가정에서 먹는 식사의 형태를 말함.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 등에서 구입한 부식이나 반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 등을 집에 가지고 와서 먹는 식사를 말함. 일반사단법인 일본부식(惣菜)협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부식백서에 의하면, 2022년도 중식 시장은 10조 4,652억 엔인 것으로 나타남
 주 3. 알파화 쌀가루란 쌀가루의 한 종류로, 뜨거운 물에 녹기 쉽고 끈기가 있어 다양한 재료와 조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주요 정책

일본에서는 2008년 세계적인 식량 수급 불안과 가격폭등 상황 속에서 전략작물이라는 용어가 처음 거론되었다.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중 전략작물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는 정책으로는 논활용직불금 가운데 전략작물 조성 및 지속적 생산강화 대책사업 가운데 전략작물 생산확대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논활용직불금의 전략작물 조성은 전략작물 생산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지교부금과 지역연계형 조성 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쌀 신시장개척 등 촉진사업과 2023년도에는 밭화(畑地化) 촉진조성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한편, '전략작물'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두, 밀, 사료용 쌀 등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지원사업이 있다.

2.1. '전략작물' 용어가 등장하는 세부 지원 사업

2.1.1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은 식량자급률 및 자급력 향상을 위해 맥류, 대두, 분질미 등 전략작물 재배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산지조성, 산지와 수요자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저비용 생산 실천, 밭화를 통해 고수익작물의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전환 확대를 도모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책 목표로는 우선 기본계획에 의거한 식량자급률 목표와 연동되어 2030년까지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생산 확대를 위해 사료용 쌀 70만 톤, 쌀가루용 쌀 13만 톤 확대를 두고 있으며, 맥류, 대두 재배 확대를 위해 맥류 30.7만 ha, 대두 17만 ha로 재배면적 확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와 결합을 기반으로 하여 수요에 대응하여 생산하는 산지를 육성하고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사료자급률 34%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사료용 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2025년까지 사료용 쌀 생산비용을 10년간 50% 정도 삭감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2023년도 예산은 3,050억 엔⁴⁾으로 결정되었다.

4) 100엔에 922.7원(2023. 8. 21. 현재)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전략작물조성과 산지교부금, 도도부현 연계형 조성, 쌀 신시장개척 등 촉진사업, 밭화(畑地化)촉진조성의 5가지가 있다.

우선 전략작물조성은 논을 활용하여 맥류, 대두, 사료작물, WCS용 벼(총체벼)⁵⁾, 가공용 쌀, 사료용 쌀, 분질미를 생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맥류와 대두, 사료작물(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경우 10a당 3.5만 엔을 지급⁶⁾하고 있고, 같은 사료작물의 경우에도 수확만 하는 경우에는 10a당 1.0만 엔을 지급한다. WCS용 벼의 경우 8만 엔을, 가공용 쌀은 2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사료용 쌀과 쌀가루용 쌀은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데 기본적으로 5.5만 엔을 지급하고 단위수량이 늘어나면 수량 지불 단가가 늘어나게 되어 최대 10.5만 엔까지 지급받게 된다. 단, 사료용 쌀의 일반품종은 2023년도에는 종래와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2024년도부터 표준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6년도에는 표준단가 6.5만 엔/10a(5.5~7.5만 엔)으로 한다⁷⁾.

해당년도산의 이하의 실천에 대해서는 자금 내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메밀이나 유채, 신시장개척용쌀, 지력증진작물의 작부(기간작일 경우)의 경우 10a당 2만 엔, 신시장개척용쌀의 복수년 계약일 경우 10a당 1만 엔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표 3〉 전략작물 조성 대상작물 및 교부단가

대상작물	교부단가
맥류(밀, 이조대맥, 육조대맥, 나맥), 대두 및 사료작물(목초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산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행하는 것에 한함)	3.5만 엔/10a
사료작물 (목초 가운데 해당연도에 파종은 하지 않고 수확만 하는 것에 한함)	1.0만 엔/10a
WCS용 벼(총체벼)	8.0만 엔/10a
가공용 쌀	2.0만 엔/10a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수량에 따라 5.5만 엔~10.5만 엔/10a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3.4.), “経営所得安定対策等実施要綱(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요강)”, p. 34(검색일: 2023. 8. 5.)

주 1. 자가가공품(판매목적)의 제조원료로 제공할 목적이거나 자신의 축산경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대상작물을 생산하는 자도 대상이 됨(산지교부금 및 밭화 고수익화 촉진조성도 마찬가지).

주 2. 전략작물조성은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인 기간(基幹)작만을 대상으로 함.

5) WCS(Whole Crop Silage)용 벼란 발효조사료용 벼로 알곡에서 줄기까지 모두 사용한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함

6) 다년생 목초의 경우 파종하지 않고 수확만 할 경우에는 10a당 2만 엔 지원

7) 2024년산에서 주식용 쌀로의 회귀를 방지하면서 다수 품종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임. 2023년산은 다수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수품종·일반품종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2024년산 이후에는 일반품종에 대해 계속 지원 대상으로 하되 2024년산~8년산에 걸쳐 지원 수준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주 3. 목초 가운데 해당연도산에서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나 종자 기록 확인을 통해 지역보급조직 등이 지도하는 적정한 파종량을 감안하여 파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함.

주 4. 쌀신시장개척 등 촉진사업과 발작물산지형성촉진사업의 지원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맥류, 대두, 사료작물(자실(子実)용 옥수수(옥수수 자실 부분 및 자실 부분과 함께 압수심 및 이삭껍질을 이용하는 것(채소 제외)을 말함.) 가운데 사료용에 한함.) 및 가공용 쌀 및 쌀 가루용 쌀의 전락작물조성 대상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산지교부금사업은 각 지역의 '논 수익력 강화비전'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저비용화를 목표로 지역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이모작이나 축산 연계를 포함한 산지 만들기 사업을 지역 재량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가 배분하는 자금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이나 지역농업재생협의회⁸⁾별로 '논 수익력 강화 비전'에 대해 지원 내용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

셋째로 도도부현 연계형 조성 사업은 도도부현이 전환작물⁹⁾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생산자(판매 목적으로 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판매농가, 집락농가)를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 대상이 된 작물의 전년도 대비 확대면적에 따라 도도부현의 지원단가와 같은 금액을 10a당 5천 엔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째로 쌀신시장개척 등 촉진사업(예산 110억 엔)은 각 산지별로 실수요자와의 협동플랜에 따라 실수요자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지 수요자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신시장개척용 쌀 등에 대해 저비용생산 등의 실천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파재배를 한다든지, 토양진단을 통한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스마트 농업 기계를 활용해 나가고 있다.

2023년 신시장개척용 쌀과 가공용 쌀, 쌀가루용 쌀에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신시장개척용 쌀 10a당 4만 엔, 가공용 쌀은 3만 엔, 쌀가루용 쌀(빵이나 면용 전용 품종) 9만 엔을 지급하게 된다. 채택 기준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실천 면적 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존에 쌀 활용직불금 가운데 전락작물 조성 및 산지교부금 실천에 따른 추가배분 대상 면적 분은 제외한다. 예산액 가운데 33만 엔은 지역농업재생협의회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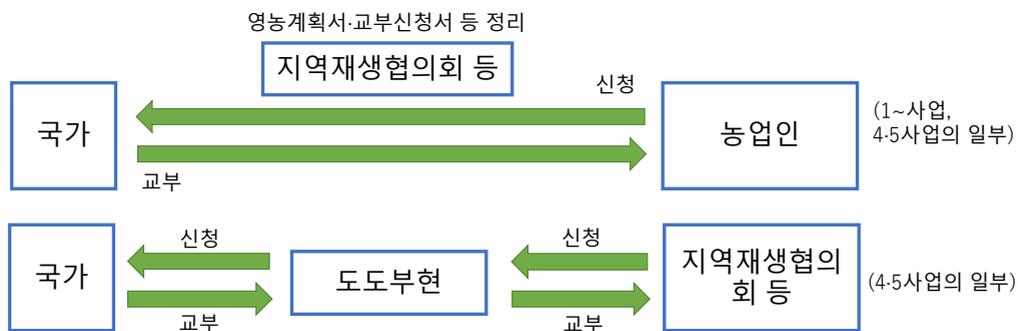
8) 지역농업재생협의회란 경영소득안정대책에 필요한 현장 추진활동과 요건확인 등을 실시하는 지역 단계의 사업 실시 주체로 농업인의 대표, 농업공제조합, 농업위원회, 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 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등의 농업인과 시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하는 협의체임

9) 전환작물이란 전락작물, 메밀, 유채, 신시장 개척용 쌀, 지력증진작물, 고수익작물 및 자실용 옥수수를 말함

마지막으로 밭작물본작(本作)화추진조성(예산 222억 엔)은 세부 사업으로 5가지가 있다. 우선,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밭화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수익작물¹⁰⁾에 대해서는 10a당 17.5만엔¹¹⁾을, 고수익작물 외 밭작물은 10a당 14만 엔을 지급한다. 세부 대상 작물로는 맥류, 대두, 사료작물(목초 등), 자실용 옥수수, 메밀 등이다. 다음으로 정착촉진지원으로는 전술한 밭화 지원사업과 함께 고수익작물과 고수익의 작물 모두를 대상으로 5년간 10a당 2만 엔을 지원한다. 고수익작물이 가공 및 업무용 채소일 경우에는 3만 엔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자실용 옥수수 지원은 10a당 1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밭작물산지형성촉진사업(산지만들기체제구축 등 지원사업)은 밭작물의 산지형성을 실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자 간 조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작물은 2023년 맥류, 대두, 고수익작물(가공 및 업무용 채소), 자실용 옥수수이고 10a당 4만 엔을 지원하며, 2024년도까지 밭화가 실천될 경우 10a당 5천 엔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채택 기준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실천 면적 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사업 역시 기존에 쌀 활용직불금 가운데 전략작물조성 및 산지교부금 실천에 따른 추가배분 대상 면적 분은 제외한다. 예산액 가운데 90만 엔은 지역농업재생협의회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논활용직불금 사업비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이 각 지역농업재생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3〉 논활용직불금 사업 체제



자료: 농림수산성(2023.4.), “水田活用の直接支払交付金等(논활용 직접지불교부금 등)”, p. 1(검색일: 2023. 8. 5.)

10) 고수익작물이란 주식용 쌀과 비교해서 면적당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말하는데, 채소, 화훼 및 과수에 해당함. 단, 지방농정국이 고수익작물로 승인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함

11) 2023년도까지의 시한 단가

앞에서 언급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교부금 사례로 오사카부(大阪府)의 가타노시(交野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면 2023년도부터 유기농업 추진에 대한 교부금이 신설되었고, 규모확대 가산, GAP 추진과 관련한 가산 등은 사라졌다. 해당 교부 내용 및 조성금액은 2023년 4월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으로 단가는 추가 배분이나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 4〉 오사카부 가타노시의 고수익작물 확대가산 사업 개요

오사카 가타노시의 사례(2023년) 세부 내용	
교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 에코 농산물, 나니와 전통야채는 오사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채소, 과수, 화훼작물은 판매전표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 ○ 후계자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1일 현재 인정을 받고, 시정촌이 실시하는 경영내용에 관한 자기점검 시트를 제출한 사람 대상 ○ 주식용 쌀을 재배하는 논에서는 맥류, 대두 등 전략작물에만 교부

자료: 오사카부 가타노시 홈페이지. “令和5年度 経営所得安定対策事業のご案内(2023년 경영소득안정대책사업 안내, 2023.4.)”, <https://www.city.katano.osaka.jp/docs/2020070700028/>(검색일: 2023.8.6.)

주: 조성금액은 1a 이상 1a 단가로 지급함.

〈표 5〉 오사카 가타노시 고수익작물 확대가산의 대상작물 및 교부단가

대상작물	요건 등	교부 단가
① 자산지소작물 (나니와 특산식품 포함)	2023년 중에 출하, 판매하고 있을 것 (전략작물, 죽순, 소바, ②③④대상작물은 제외)	5,000엔/10a
② 유기농업 (유기JAS인증, 오사카 에코 농산물 (농약·화학비료) 불사용인증)	유기JAS인증이나 오사카 에코 농산물 (농약·화학비료)불사용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조성	50,000엔/10a
③ 오사카에코 농산물	오사카부가 정한 오사카 에코 농산물 인증을 받은 작물에 조성 (80품목)	20,000엔/10a
나니와 전통채소	오사카부가 정하는 나니와 전통채소인증을 받은 작물에 조성 (19품목)	
④ 지역진흥작물	가타노시 농업재생협의회 논수익력강화비전에서 지역진흥작물 로 정한 5가지 품목 (감자, 토란, 무, 고구마, 연약채소 등)에 조성	13,000엔/10a
⑤ 중심적 농업인력 육성	10월 1일 현재 인정받은 인정농업자의 작물 ①~④, ⑥ 작물에 가산(별도 요건 있음)	10,000엔/10a
⑥ 에코 대두 에코신규수요미 가산	전략작물 조성을 받은 에코대두 및 에코신규수요쌀(쌀가루용 쌀, WCS, 사료용 쌀), 에코가공용 쌀에 가산	13,000엔/10a
⑦ 시설원예가산	고수익작물의 수량, 품질의 안정 및 수익력향상을 위한 시설재배하는 ②~④작물에 가산	12,000엔/10a

자료: 오사카부 가타노시 홈페이지. “令和5年度 経営所得安定対策事業のご案内(2023년 경영소득안정대책사업 안내, 2023.4.)”, <https://www.city.katano.osaka.jp/docs/2020070700028/>(검색일: 2023.8.6.)

주 1. 나니와 전통채소란 주로 현재의 오사카부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되어 온 채소의 토종 품종을 말하며, 오사카부는 2005년에 ‘나니와 전통채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약 100년 이상 전부터 오사카부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 품종의 내력이 분명하고 그것이 오사카부 내에서 유래한 것 등을 기준으로 19품목을 지정하고 있음.

주 2. 오사카 에코 농산물이란 농약의 사용횟수,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오사카부 내의 표준 사용횟수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오사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로 오사카부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함.

2.1.2. 지속적 생산강화 대책사업 중 전략작물생산확대지원사업

전략작물생산확대지원사업은 식량 자급률·자급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료용 쌀, 보리, 대두 등 전략작물의 수요 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작부체계전환지원사업, 수요에 따른 종자생산 및 공급체제 구축 지원사업, 대두가격형성안정화사업이 있다.

우선 작부체계전환지원사업은 대두, 보리 및 사료용 쌀, 가공용 쌀, 쌀가루용 쌀과 기타 지방 농정국장이 인정하는 토지이용형 작물(사료용 쌀 등)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 작부체계, 재배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적절한 윤작체계 확립을 위한 작물별 농지집약 대응을 하는 효율적인 작부체계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수요에 따른 종자생산 및 공급체제 구축 지원사업은 품종육성자 또는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수요가 있는 수출용 쌀, 증식·외식용 및 가공용 쌀 등과 보리·콩 품종의 공급확대를 위해 복수의 종자장(場)에서 종자 생산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나, 이에 대응하는 종자장이 새로운 종자 생산에 필요한 기계의 도입 등을 지원한다. 또 종자의 생산 및 공급체제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자들의 광역 단위 연계 검토 회의 개최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종자 생산 및 비축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두가격형성안정화사업은 국산 콩과 관련하여 수급 사정, 품질 평가 및 소비자·실수요자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콩 실물 거래와 관련한 입찰방법을 실시할 경우 관련한 시설 개설이나 운영, 입찰 거래와 관련된 관계자나 감시위원 배치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2. 전략작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전략작물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 등도 전략작물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1.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 유채와 같은 발작물에 대해 타국과의 생산조건의 격차 및 농업수입의 감소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수확 후 품질 구분별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작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영농계속지불(이하, 면적지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면적지불을 같이 신청하게 되면 수량지불에서 면적지불만큼은 제외하고 직불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면적지불은 수확 후에 수확 상황을 확인하고 난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적지불 단가는 10a 당 2만 엔이며, 메밀만 1만 3천 엔이다. 2023년도 예산은 약 2,000억 엔 규모이다.

주요 작물인 밀과 보리, 쌀보리, 대두 단가는 다음과 같다(표 6). 밀의 경우, 품종은 빵중화면 품종과 그 외 품종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품종은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가운데서도 다시 A~D 랭크로 나누어 책정되어 있다. 2023년부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본 단가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단가이다. 보리, 쌀보리의 경우, 품종은 이조대맥, 육조대맥, 쌀보리로 나누어지며, 대두의 경우, 품질구분은 보통대두와 가공용대두로, 등급은 1등급~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사탕무와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과 유채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사탕무는 당도로, 전분 원료용 감자는 전분함유율로 단가가 정해지며, 메밀은 품질 등급으로, 유채는 품종에 의해 단가가 차별화된다.

〈표 6〉 밀의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60kg

품질구분 (등급/랭크)	1등				2등			
	A	B	C	D	A	B	C	D
빵·중화면용품종								
과세사업자	7,860	7,360	7,210	7,150	6,700	6,200	6,050	5,990
면세사업자	8,270	7,770	7,620	7,560	7,110	6,610	6,460	6,400
빵·중화면용품종 외								
과세사업자	5,560	5,060	4,910	4,850	4,400	3,900	3,750	3,690
면세사업자	5,970	5,470	5,320	5,260	4,810	4,310	4,160	4,1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3.4.), “経営所得安定対策等実施要綱(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요강)”, p. 18(검색일: 2023. 8. 5.)

〈표 7〉 보리 및 쌀보리의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수량

품질구분 (등급/랭크)	1등				2등			
	A	B	C	D	A	B	C	D
이조대맥(50kg당)								
과세사업자	5,870	5,450	5,330	5,280	5,010	4,590	4,460	4,410
면제사업자	6,220	5,800	5,680	5,630	5,360	4,940	4,810	4,760
육조대맥(50kg당)								
과세사업자	5,210	4,790	4,660	4,610	4,180	3,760	3,640	3,590
면제사업자	5,510	5,090	4,960	4,910	4,480	4,060	3,940	3,890
쌀보리(60kg당)								
과세사업자	9,220	8,720	8,570	8,480	7,650	7,150	7,000	6,920
면제사업자	9,750	9,250	9,100	9,010	8,180	7,680	7,530	7,45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3.4.), “經營所得安定対策等実施要綱(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요강)”, pp 18-19(검색일: 2023. 8. 5.)

〈표 8〉 대두의 발작물직접지불교부금 단가

단위: 엔/60kg

품질구분 (등급/랭크)	보통대두			특정가공용
	1등	2등	3등	합격
과세사업자	10,360	9,670	8,990	8,310
면제사업자	10,770	10,080	9,400	8,72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3.4.), “經營所得安定対策等実施要綱(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요강)”, p. 19(검색일: 2023. 8. 5.)

2.2.2.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

지속적생산강화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은 맥류·대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양, 품질, 가격 측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맥류 및 대두 산지가 중심이 되어 국산 점유율을 확대하고 지급률을 향상하며 수요에 따라 논을 풀(full)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에서는 ‘맥·대두생산성향상 계획’ 및 ‘맥·대두산지생산성향상계획’(산지계획)을 근거로 산지 차원에서 단지화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재배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산지 생산 체제 강화, 수익성·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 단체나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이 계획을 마련하고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사업은 사업 실시 주체가 단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지는 논이며, 지원 단가는 50ha 미만이면 50만엔, 50ha 이상

150ha 미만이면 100만엔, 150ha 이상이면 150만엔이다. 여기에 맥류 및 대두를 둘러싼 해당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신규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술의 내용에 따라 면적당 단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선진기술 도입의 경우 10,000엔/10a, 수요에 따른 신제품 등의 도입의 경우 7,500엔/10a 등이다. 또한 논 보리·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시설의 도입이나 리스, 개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대상으로 하는 기계 등은 50만엔 이상 5,000만 엔 미만으로 한다.

3.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

3.1. 전략작물 재배 현황 및 농활용직불금 지급 실적

3.1.1. 전략작물 재배 현황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 결과, 논 농업에서 주식용 쌀 생산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가공용 쌀과 신규 수요 쌀(사료용 쌀, WCS, 쌀가루용 쌀, 신시장 개척용 쌀), 맥류, 대두 등 전략작물의 총 생산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주식용 쌀 생산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 2012년에 152.4만 ha에서 2022년 125.1만 ha로 17.9% 줄어드는 반면, 전략작물은 2012년에 37.8만 ha에서 2022년에는 54.9만 ha로 4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어 사료용 쌀은 크게 늘었고, WCS(총체벼), 쌀가루용 쌀도 상당히 늘어났으며, 맥류와 대두의 경우는 10% 수준이었다.

전략작물 작목별로는 우선 가공용 쌀 면적은 2012년에 3.3만 ha에서 2022년 5만 ha로 늘어나 51.5%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2년 이후 매년 늘어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 5만 ha로 다시 늘어났다. 신규 수요 쌀 부분에서는 사료용 쌀 면적이 2010년 3.5만 ha에서 2022년에는 14.2만 ha로 4.1배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에 큰 폭으로 늘었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 14.2만 ha로 크게 늘어났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22.4% 증가했다. WCS는 2010년 2.6만 ha에서 2022년 4.8만 ha로 1.8배 늘어났으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17년에 정체한 이후 2022년 4.8만 ha를 보이고 있다. 쌀가루용 쌀은 2012년 0.6만 ha에서 2022년 0.8만 ha로 1.3배 늘어났다. 2016년까지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부터 소폭 증가한 채

정체를 보였으나 2020년을 거쳐 2022년에는 0.8만 ha를 생산했다. 신시장 개척용 쌀은 201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7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이후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에 0.7만 ha 생산되었다. 맥류는 2012년 9.6만 ha에서 2022년 10.6만 ha로 10%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다. 소곡 증가와 정체를 거듭하다 2015년, 2016년을 최고치를 보였고 2022년에 10.6ha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대두 역시 2012년 8.1만 ha에서 2022년 8.9만 ha로 10% 정도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15년 소곡 증가하여 2017년 최고치를 보이고 줄어들다 2022년 8.9만 ha로 전년도에 비해 소곡 늘어났다.

이로써 전략작물 합계 면적은 2017년에 48.3만 ha로 최고치를 보이며 줄어들다 2022년에는 54.9만 ha로 주식용 쌀(125.1만 ha) 면적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전략작물 재배 현황 추이

단위: 만 ha

	주식용 쌀	전략작물									비축미
		가공용 쌀	신규 수요 쌀				맥류	대두	기타	전략작물 합계 면적	
			사료용 쌀	WCS	쌀가루용 쌀	신시장 개척용 쌀					
2012년산	152.4	3.3	3.5	2.6	0.6	0.0	9.6	8.1	10.1	37.8	1.5
2013년산	152.2	3.8	2.2	2.7	0.4	0.1	9.7	7.9	10.1	36.9	3.3
2014년산	147.4	4.9	3.4	3.1	0.3	0.1	9.8	8.0	9.9	39.5	4.5
2015년산	140.6	4.7	8.0	3.8	0.4	0.2	9.9	8.7	10.0	45.7	4.5
2016년산	138.1	5.1	9.1	4.1	0.3	0.1	9.9	8.9	10.2	47.7	4.0
2017년산	137.0	5.2	9.2	4.3	0.5	0.1	9.8	9.0	10.2	48.3	3.5
2018년산	138.6	5.1	8.0	4.3	0.5	0.4	9.7	8.8	10.2	47.0	2.2
2019년산	137.9	4.7	7.3	4.2	0.5	0.4	9.7	8.6	10.2	45.6	3.3
2020년산	136.6	4.5	7.1	4.3	0.6	0.6	9.8	8.5	10.2	45.6	3.7
2021년산	130.3	4.8	11.6	4.4	0.8	0.7	10.2	8.5	10.2	51.2	3.6
2022년산	125.1	5.0	14.2	4.8	0.8	0.7	10.6	8.9	9.9	54.9	3.6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보도자료(2023), “令和4年産の水田における作付状況について(2022년 논 작부현황에 대해)”, https://www.maff.go.jp/j/press/nousan/s_taisaku/attach/pdf/221014-1.pdf(검색일: 2023. 8. 15.)

주 1. 주식용 쌀은 통계부 공표의 도도부현별 주식용 쌀 면적.

주 2. 가공용 쌀 및 신규 수요미는 대응계획의 인정면적으로 비축미는 지역농업재생협의회가 파악한 면적.

주 3. 보리, 대두, 사료작물, 메밀, 유채는 지방농정국 등이 도도부현 농업재생협의회 등에서 확인한 면적(기간작).

3.1.2.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중 전략작물 면적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으로 전략작물에 지급된 면적은 다음과 같다(표 10). 우선, 기간(基幹)작물의 경우 전년 대비 맥류, 대두는 크게 줄었으며, 신규 수요 쌀은 사료용 쌀이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WCS용 벼와 쌀가루용 쌀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가공용 쌀은 크게 줄어 전략작물 합계로는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한편 메밀과 유채, 신시장 개척용 쌀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표 10〉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중 전략작물 면적

단위: ha

		2021년	2020년	전년도 대비
맥류		78,478	98,448	▲19,970
대두		71,119	83,731	▲12,612
사료작물		71,836	71,776	60
신규 수요 쌀	합계	166,764	119,449	47,315
	WCS용 벼	43,898	42,462	1,436
	쌀가루용 쌀	7,579	6,321	1,258
	사료용 쌀	115,286	70,665	44,621
가공용 쌀		22,092	41,830	▲19,737
전략작물 합계		410,289	415,233	▲4,944
(참고)	메밀	27,152	27,648	▲496
	유채	712	835	▲123
	신시장 개척용 쌀	5,307	5,901	▲59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支払実績(令和3年4月末時点)경영소득안정대책지불실적(2022.4월 말 시점)”, https://www.maff.go.jp/j/seisaku_tokatu/antei/r2_jisseki.html

주: 쌀가루용 쌀과 사료용 쌀은 수량지불에 의해 교부된 면적을 재환산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전략작물 지불면적과는 차이가 남.

3.2. 전략작물 관련 정책 과제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자국 내 평가에 따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북해도 평가 결과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빵, 중화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단가가 높은 일본면용 품종 생산비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거나 기상재해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략작물 품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했지만 특정 품종 쏠림 현상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 확대 이후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키타 평가 결과보고서(2018년)에서는 쌀 생산량이 전국 세 번째로 쌀 생산에서 전략작물로 전환을 유도했으나 논 토양이 배수불량으로 생산기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략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배수강화 대책 및 수리 시설 수명 연장 대책 등 기반시설과 함께 저장창고, 잡곡 전용 도정시설 등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4. 시사점

일본에서는 식량안보강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기존에 쌀 과잉 대응을 위해 추진해오던 논활용 직불제의 전략작물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세부 사업 가운데 논을 받으로 전환하는 사업까지 도입하는 등 전략작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식량을 둘러싼 동시대의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의 대응과는 사뭇 달라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전략작물 직불제의 도입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대상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식량자급률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염두에 둔다면 전략작물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밭에서 재배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작물을 전략작물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 전방위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략작물 조성 가운데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여 전략작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작물을 확대하거나 지역 인증 등을 통해 보존하는 산지교부금이나 도도부현 연계 조성 사업, 쌀신시장개척 사업 등은 지역재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계획하에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지역의 농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의 전략작물 정책에 대한 자국 내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략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품목 선택에 따른 지원 이외에 아키타의 사례처럼 수리 및 배수시설 등 농업 생산을 위한 기반 지원이 필요하며, 보관시설이나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공 특이성에 맞는 품종개발이나 재배 기술, 작기의 조절 및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성. 2023. 令和4年度食料・農業・農村白書(2022년도 식량·농업·농촌백서). (검색일: 2023. 8. 5.)

농림수산성. 2020.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검색일: 2023. 8. 5.)

농림수산성. 2023. 経営所得安定対策等実施要綱(경영소득안정대책 등 실시요강). (검색일: 2023. 8. 5.)

농림수산성. 2023. 水田活用の直接支払交付金等(논활용 직접지불교부금 등) (검색일: 2023. 8. 5.)

참고사이트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経営所得安定対策等の支払実績令和3年4月末時点(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지불실적 2021년 4월말). https://www.maff.go.jp/j/seisaku_tokatu/antei/r2_jisseki.html (검색일: 2022. 11.14.)

戦略作物生産拡大支援事業(전략작물 생산확대 지원사업).

https://www.maff.go.jp/j/seisaku_tokatu/attach/pdf/r3yosan-2.pdf(검색일: 2022.11.13.)

食料自給率とは(식량자급률이란). https://www.maff.go.jp/j/zyukyu/zikyu_ritu/011.html(검색일: 2023.8.5.)

食料自給率目標と食料自給力指標について(식량자급률목표와 식량자급력지수에 대해서). http://www.maff.go.jp/j/keikaku/k_aratana/index.html (검색일: 2023.8.5.)

戦略作物生産拡大関連施設緊急整備事業の事業評価結果について(전략작물생산확대 관련 시설급정비사업의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 https://www.maff.go.jp/j/seisan/suisin/tu_yoi_nougyou/senryaku/attach/pdf/index-2.pdf(검색일: 2023.8.15.)

아키타현청 홈페이지

戦略作物生産拡大のための取り組み(전략작물 생산확대를 위한 사례). <https://www.pref.akita.lg.jp/pages/genre/13741>(검색일: 2023.8.15.)

오사카부 카타노시 홈페이지

令和5年度経営所得安定対策事業のご案内(2023년 경영소득안정대책사업 안내, 2023.4.).

<https://www.city.katano.osaka.jp/docs/2020070700028/>(검색일: 2023.8.6.)